

사우회, 백내장 수술비 전액 지원

사우회는 회원 의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백내장 무료 검진을 주선하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7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S안과 병원에서, 김무연 대표원장과 의료 제휴협약서 서명식을 갖고, 사우회 회원과 배우자들에 대한 백내장 무료검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백내장 검진을 희망하는 회원은 GS안과에 검진 예약을 한 후 무료검진을 받게 된다.



다. 이연현 회장은 “검진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현 회장과 김무연 원장은 또한 12단계 51가지 정밀 안과검진도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무료검진에 해당되지 않는 검진이나 수술비의 경우에도 사우회원 특별 할인가로하기로 합의했다. 백내장 검진 예약은 박유나팀장(010-8725-3334)이나 사우회 사무처로 하면 된다.



상반기 원로회원 문화탐방 행사 실시

2016년도 상반기 원로회원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 행사가 6월30일 대전과 부여에서 실시됐다. 오전 8시50분 사우회를 출발한 원로회원들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 최첨단 연구결과들을 실제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고,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초

청한 오찬에 참석해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부여로 이동한 회원들은 10여 년간 공사비 3,900억원이 투입된 백제문화단지를 찾아 웅장한 궁궐시설과 능사 등 사찰시설을 관람했다. 귀경 길에 오른 회원들은 사우회 앞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것으로 이번 여정을 마무리했다.



새 경조비 지급 규정 7월1일부터 시행

사우회는 7월 1일부터 새 경조비 지급 규정(회무규정 제4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0일 이사회 결의로 개정된 회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회원 회갑의 경우 선물(5만원 상당)로 대체됐으며, 회원 자녀 결혼은 축의금 100,000원

또는 화환 중에서 회원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또 회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조정되는데, 연회비 30,000원, 평생회비 500,000원, 입회비 50,000원이다. 개정된 회무규정 제4조의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1. 회원의 자녀 결혼	축의금 100,000원 또는 화환 100,000원
2. 회원의 회갑	축하선물 전달 (5만원 상당)
3. 회원의 고회	축의금 200,000원
4. 회원의 팔순	축의금 100,000원
5. 회원의 구순 및 백수	축의금 100,000원
6. 회원의 사망	조의금 300,000원 근조기 설치
7. 회원의 배우자 사망	조의금 200,000원 근조기 설치
8. 회원의 부모 사망	조의금 100,000원 근조기 설치
9. 회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	조의금 100,000원 근조기 설치

봄철 사우회장배 바둑대회 열려

금년도 봄철 바둑대회가 6월 2일 오전 10시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A조(4급 이상)와 B조로 나뉘어 개최된 대회에서 A조 우승은 김정수(보도), 준우승은 김경식(편제)회원이 차지했으며, B조 우승은 박종규(기술), 준우승은 김영균(관리)

회원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A조에 18명, B조에 19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다. 봄, 가을에 개최되는 연례대회 이외에도 바둑동호회(회장 고영일)는 매월 두 차례 사우회 사무실에서 친선 대국을 갖고 있다.



Global No. 1 Edutainment Company

키자니아 2호점, 키자니아 부산 오픈!

"MBC플레이비 키자니아는 NO.1 교육 콘텐츠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한의사가 되어 보는 한의원 체험

레이서가 되어 보는 레이싱 트랙 체험

투수와 중계 캐스터가 되어 보는 스포츠방송센터 체험

초콜릿 마스터가 되어 보는 초콜릿 공장 체험

카 디자이너가 되어 보는 오토모빌 센터 체험

치과의사가 되어 보는 치과 체험

푸드케이터가 되어 보는 바쁜의거리 스쿨 체험

방송인이 되어 보는 TV스튜디오 체험

※ MBC사우 30% 할인 혜택 제공

제 2의 인생



안 주 희 (ANN)

‘제 2의 인생’이란 ‘제 1의 인생’은 퇴한 뒤의 삶’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고작 3년 3개월간 아나운서 생활을 한 것을 두고 ‘은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전직 아나운서는 틀림없이 나는 ‘내가 아나운서였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좀 부끄럽다. 운 좋게 방송사에 합격은 했지만 나는 곧 알게 되었다. 내가 ‘마이크 올림중’이 있다는 것을. 마이크 앞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동안 정리해 둔 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이 나를 괴롭혔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 초기에 겪는 일이지만 아무튼 내겐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결국 3년 3개월 만에 결혼하며 방송을 그만뒀다. 방송에서 도망가기 위해 결혼한 셈이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반을 살리하는 주부로 보냈다. ‘아내 혹은 엄마’라는 직업. 정년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급도 없는 아주 열악한 직업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쉬는 날도 만들고, 출퇴근 시간(식구들이 귀가하면 내 출근시간, 모두 나가면 내 퇴근시간)도 만들어 시간

표를 짜놓고 이것저것 배운다고 돌아다녔다. 친구들은 내가 하도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하니 ‘넌 도대체 언제 그걸 다 써먹으려고 맨날 배우기만 하니?’라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꼭 써먹어야 하니? 그냥 뭔가를 배운다는 게 즐거운 거지’라고 답했다.

그 중의 하나가 그림이다. 개인전도 하고, 몇 군데 그룹전도 하면서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처음엔 단지 그림이 좋다는 것 외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시작한지 3,4년쯤 되었을 때 열정이 최고에 달했고 지금은 그 열정이 처음만 못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룹전을 하다보면 그림을 업력으로 하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 그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은 반감되는 것을 겪었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는 우쭐함의 이면에서는 ‘내가 과연 저들과 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하는 의심도 함께 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인물화를 주로 그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 그림을 집안에 잘 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그림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

월이 가면서 집안에 그림이 쌓이고 새로운 걱정이 생긴다. ‘이 그림을 다 어찌 할꼬’ ‘더 이상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구나’, ‘그룹활동도 줄여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내가 죽으면 같이 화형식을 해야 하나? 죽기 전에 사진 같은 건 미리 다 정리를 해놓아야 한데, 나는 내 그림도 함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돌파구가 생겼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와 사진을 정리하던 중, 친구들의 얼굴을 컴퓨터에서 펜마우스로 그려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곧 실행에 옮겼다. 몇 사람의 얼굴을 그려 친구들의 단체 카톡에 올렸다. ‘맘에 들면 저장하고 안 들면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라’는 글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이 왔다. ‘완전 재밌다’ 어떤 친구는 ‘넌넌 마음에 든다’면서 아예 카톡 프로필에 자기 얼굴 그림을 담았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나라고 막 우길래’라는 멘트를 날렸고 이어 너도 나도 자기 얼굴을 그려달라며 사진을 보내 왔다.

기대 이상으로 친구들이 재미있어하니 나 역시 행복한 감정이 밀려온

다. 작은 시진을 들고 컴퓨터를 들여다 보며 작업을 해야 하니 눈이 좀 피로하기는 하지만, 나의 작은 재주와 수고로 몇 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창출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최근에 읽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헌감으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단순히 자기만족 혹은 자기과시에서 벗어나고 주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사후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겠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쩌면 나도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대전大田으로 부여扶餘로



장 영 배(보도)

병신년丙申年의 한 복판, 6월이라 30일 아침, 푸르스름한 버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경부 고속도로를 달린다. 사우회의 올 상반기 지역탐방이 시작된 것이다. 일행은 30여 명, 인원도 단출하고 일정도 간결하다. 대전과 부여를 다녀오는 당일치기에 참여한 사우들은 9순九旬의 대 선배를 포함한 원로들이다. 버스 안은 오순도순 정다운 담소가 낮게 흐르고 사우들의 표정도 밝고 편안하다.

차창 밖을 스치는 산야는 아침에 한바탕 쏟아진 장대비로 세수한 듯 맑아 보인다.

숲은 푸르름이 짙어지고 논마다 물이 가득한 들녘에는 한창 왕성하게 성장하는 벼 줄기들이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첫 기착지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문자 그대로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연구의 원천이요 총본산이다. 전시장에서는 우리의 일상에 파고 들어 있는 정보 통신의 현 주소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영화와 공연, 교육, 의료, 관광 등 우리 생활 전반의 현란한 변화가 코앞에 예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맹렬히 변화시키는 정보 통신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무한한 편리함과 효율이 과연 인류의 참 행복인가?

상상하기 어렵고 대답도 쉽지 않다.



조성돼 있다. 사비시대(587—660) 백제 궁궐인 사비궁泗底宮은 천정문天政

門을 지나 천정전天政殿을 중심으로 웅장하게 복원돼 있었다.

백제 궁궐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능산리 사지를 재현한 능사陵寺를 둘러본다. 대통문大通門을 지나 5층 목탑(38m)이 우뚝 위용을 자랑하고 삼존불이 모셔진 대웅전에서는 성왕과 왕족들을 추모하는 독경소리가 은은하다. 그러나 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부소산扶蘇山에 올라 낙화암에서 백마강을 굽어보고 정림사지定林寺址 5층 석탑과 금동대향로(국보287호)의 진품을 보면서 패망의 눈물과 문화의 숨결을 함께 느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4시쯤 귀경 길에 올랐다. 이번 나들이는 10시간 남짓 반짝 여행이었지만 사우들을 편안하게 쉼기는 사우회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고 대전 MBC와 이진숙 사장의 환대도 참 고마웠다.

경·조사

■ 팔순 ■

신병호(대전)08/04 안병태(관리)08/05 김용균(보도)08/09 유경준(전주)08/11
김춘규(업무)09/05 최창열(미주)09/07 김병수(관리)09/10 손영조(대구)09/19
洪鍾宣(편제)09/24

■ 고희 ■

이동호(관리)08/04 김강수(업무)08/18 이시권(편제)08/23 김종창(편제)09/14
조춘희(대전)09/20

■ 회갑 ■

洪宗善(편제)08/09 강석범(기술)08/10 조영연(기술)08/12 남궁미(ANN)08/19
권혁화(ANN)08/21 이종화(대구)08/22 안광한(편제)08/27 김종길(편제)09/01
구본학(보도)09/02 김성수(보도)09/09 李茂永(편제)09/12 김기화(관리)09/14
이인재(편제)09/20 장덕수(편제)09/22 황우성(관리)09/22 박상규(관리)09/27

■ 결혼 ■

백하현(관리)장남06/11 안성일(보도)딸06/11 김채영(ANN)막내딸06/26
유기철(보도)장남06/26 홍명표(관리)장녀07/02 고대석(보도)딸07/09
최동윤(관리)차녀07/15 김양배(편제)아들07/16 이민애(관리)딸07/23
이규리(ANN)딸 07/23

■ 부음 ■

김종관(업무)부친상05/15 김택곤(보도)모친상5/18 손진우(편제)모친상05/30
박수명(편제)장모상06/03 정남영(관리)부친상06/05 김은식(업무)모친상06/16
신선희(기술)장모상06/22 이석희(기술)모친상06/28 김승월(편제)모친상07/0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채규(보도)

6월16일(목) 지병으로 별세. 향년 79세. 1969년 6월 카메
라기자로 MBC에 입사해 1981년~1986년 워싱턴특파원
을 지냈으며 1994년 명예퇴직했다. 퇴직 후 대한수중협
회 부회장, 한국동굴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金思成(관리) 010-9274-6087 종로구 동숭1길 23
金仁洙(관리) 010-9105-2346 강남구 삼성로 150
尹吉龍(편제) 010-9035-3194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7
李大熙(관리) 010-5415-3175 경기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31
鄭和容(관리) 010-9143-8270 양천구 목동서로 70

崔弘美(관리) 010-9024-4631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 평생회비 ■

최홍미(관리)05/18 박준평(편제)05/30 이대희(관리)06/09
김인수(관리)06/13 정화용(관리)06/14 김사성(관리)06/28
윤길용(편제)06/28

■ 연회비 ■

5월 : 고준호(15~16) 김금봉(24~25) 김병문(16) 김정명(16) 남의균(16)
박성배(16) 박해선(16) 유민환(16) 이오기(16) 정경태(17~19,80세납부끝)
정연호(16) 조춘희(16) 김만기(17~18)
6월 : 김재수(14~16) 김종환(16) 김철영(16) 박창순(16) 故박채규(10~16)
송기남(15~16) 심재영(12~16, 80세 납부 끝) 이기호(17~27, 80세 납부 끝)
이정오(13~16, 80세 납부 끝) 이효일(16) 장두문(17~26, 80세 납부 끝)
전정익(16) 정진민(14~16) 하광언(16) 홍학표(16)
7월 : 문용수(13~16) 은희현(15~16)

전화/주소 변경

편제 : 박명호 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848번길
이근철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98번길
이명기 관악구 관악로 8길 24
최병규 성북구 하월곡동 226
최호룡 서초구 전원말안 5길14
보도 : 김동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6길43
김민호 동작구 상도로 53길 8
김종세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05
유기철 중구 다산로 32
이용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
추성준 서초구 잠원로 8길 35
홍윤호 강서구 공항대로 269-15
ANN : 이연한 강남구 영동대로 640
기술 : 윤상호 010-8410-5050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5
업무 : 김무길 010-3533-1746 대구 동구 신암남로 147-1
관리 : 문용수 강서구 공항대로 48길 12
박성희 서초구 방배로 14
백하현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8
위은숙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
이성수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전주 : 최 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57-3

동/호/회/소/식

라디오PD들의 모임인 인사동클럽(회
장 장명호, 총무 김승월)은 6월29일
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오찬 모임
을 가졌다. 라디오본부장을 역임한 정
호식(MBC플러스)부사장이 주관한 이

날 모임에는 20명의 선배 회원들이
모여 식사와 환담으로 두시간 가량 즐
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진희(사진) 회원은 팔순잔치를 생략
한 비용 백만 원을 인사동클럽 후원금
으로 장명호 회장에게 전달해 회원들
의 축하 인사와 박수를 받았다.



김용빈 회원 이발 봉사



최근 이용사자격을 획득한 김
용빈(사진) 회원(기술)은 7월1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회원들을
위한 이발 봉사활동을 한다. 침,뜸
자격증도 갖고 있는 김용빈 회원

은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침, 뜸
교육도 해주겠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해서 출입이 부자유스러운
회원들에게는 직접 집으로 찾아
가 이발봉사를 해드릴 계획이다.



회/원/동/정



황윤환(기술) (사)한국풍란연합회가 펴낸 「명품풍란도감 名品風蘭圖鑑」의 편찬 위원장으로서 도감 발간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풍란연합회 풍란등록심의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성금(관리) 2012년 유통물류전문 기업 (주)아신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여 꾸준한 매출 신장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연임되었다. 올해부터는 특히 병원 물류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에 있다.



허연희(보도) iMBC 대표이사. 5월 18일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스포츠중계에 참여했던 선배들을 초청하여 MBC 상암동 신사옥을 견학한뒤 오찬을 함께 하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운(기술) 5월 30일 임기 2년의 방송통신위원회 제 4기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최양묵(편제) 〈영화DVD의 추억, 그 오디오세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러브스토리(로맨틱 필름) 51편의 환희와 비애”라는 부제를 달았다.

시청자미디어 부산센터장. 6월10일 '장애인 미디어축제'를 주관했다. 지



김영일(보도) 난 10년간 부산에서만 해오던 행사를 올해부터 전국 행사로 확대하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등 6곳에서 순회 개최했다.



정수열(편제) 6월23일부터 7월 2일까지 극동대학교 초빙 교수 자격으로 한·몽골 학생교류 및 한국어 교육 협의차 몽골 이흐자삭대학교를 방문했다.

대지만성 大地晩成, 용인 '대장금 파크'와 30년 세월



오명환(편제)

당 초 이름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용인 문화동산'이었다. 이후 드라마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인 'MBC드라마'를 거쳐 복합 한류테마를 지향한 '용인 대장금 파크'로 개명한다. 21세기 방송의 국제화, 전문화, 고품질화를 담보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 확보계획은 1987년 3월, 중장기 개발추진단에서 시작했다. 지형조사와 유용성 점검을 거쳐 그해 12월, 2,795,467m²(약 84만 4천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지목별로는 임야 82만 평, 논밭이 2만4천 평이었다. 95년도 토지실행제 실시로 법인소유 시비, 일부 타인 명의 해제, 지목 변경 조정에 정종국 부장 이하 시설팀이 생고생을 겪었다. 서북쪽 앞길은 용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해발 450미터의 구봉산에 막혀 있다. 야트막한 구릉이 많은 용인 지형과는 달리, 우람한 아홉 봉우리 산은 미래형 드림랜드의 청사진을 품어 안기 어려워 보였다. <밤, 뱀, 벌>이 많은 곳, 4월이면 구불구불 도로의 흙먼지를 뒤로하고 개나리를 심던 '약속의 땅'에 종합 활용안이 전사적으로 논의되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모델로 한 세트장을 짓고도 남을 70여만 평 고지에 골프장, 공원묘지, 주말농장, 실버타운, 대형목장, 수련원, 종합레저단지 조성 등등의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입장료 7천원, 연중무휴...'매표소를 보니 격세지감이 든다.

당시 공영방송이 수익사업을 넘보

는 것은 언감생심 맞지 않은 방정식이었다. KBS와 2원 체제하에 MBC에 쏠리는 완판 광고와 대기(웨이팅)광고가 즐비할 만큼 광고수입만으로도 뱅뱅한 황금 시절이었다. 1992년 5월, 제작단지 종합건립안은 해발 200미터 이하의 땅을 1차 목표로 했다. 사극 오픈세트 2만평, 시대극 현대극 9천평, 다목적 촬영소 1만평, 특수촬영 1천평, 스튜디오 4개와 부대시설 등 약 6만평에 이르렀다. 지금 5만평을 차지하는 시설의 초안이 여기서 마련된 것이다.

5월18일, 사우회 창립 26주년 날에 버스 6대에 분승한 250명의 사우들은 '30년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선 느낌이었다. 매마침 방송 중인 사극 <옥중화>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 명나라 비단 보따리를 매고 온 상단, 왕패들과 드잡이를 하고 있는 이병훈PD가 보였다. 일찍이 '대장금'을 연출한 72세의 노장은 과거여행 밖의 현장에서 우렁찬 현역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부럽다, 부러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자동차로 한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정동과 여의도 왕래에 그쳤던 MBC의 동선을 80여 킬로나 확장했다. 자체 드라마뿐 아니라 각종 전시시설과 체험시설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영화, CF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NHK 등 해외 방송사 촬영에 임대도 했다. 찬찬히 돌아보자면 두어 시간에 족히 9천보(5킬로)의 걸음을 해야한다. 언덕배기에 자리한 스물댓 군데의 구간 이동은 모두 가파른 발길로 한낮의 등땀이 났다. 건축물

은 2004년 '신돈'부터 시작하여 '주몽' '이산' '선덕여왕' '짜짜' '동이' '무신' '정이' '화정'에서 최근 '옥중화'의 원형 전옥서(감옥)까지 12년째 세세연년 증설과 대폭 투자를 누적했다. 13년 전 의정부 문화동산 일각에 세워 사용했던 <대장금> 세트도 이전 복원했다. 가장 널찍한 인정전과 연무장을 비롯, 동궁전, 해민서, 규장각, 포도

여 5년이 겨우 지났다.

그러나 최대 잠재력은 사용가능 면적이 전 부지의 절반인 43만평으로 빅 스케일을 보전한다. 구입비 67억에 비해 약 900억의 자산가치가 증가했다. 국내 최대 한류 테마파크의 위용과 항구적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

회사 측은 향후 호텔, 병원, 골프장 등 리조트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상암동 'MBC 월드'와 '양주 문화동산'과 3각을 이뤄 관광, 휴양, 체험을 겸한 다목적 메카를 자임하는 셈이다. 고개를 둘러보면 구봉산은 튼실한 뒷자원이 되고 앞 하늘은 트이



<옥중화> 이병훈 PD

청과 양반가, 저잣거리 등 250여 동은 반영구적이다. 관존민비는 되살아난다. 궁궐과 관아, 반가 중심의 기와동이 대부분이고 민초들의 삶을 보듬는 민가는 인색했다. 또한 자연생태와 물수자원이 보이지 않아 팍팍했다. 동쪽 윗자락에 있던 호수는 매워지고 계곡이나 개천도 없다 보니, 있을 법한 나루터나 우물터, 물레방아간은 아예 들어설 수 없다. 한 끼를 때우려면 20여분 다 시 백암 읍까지 나와야 한다.

'대장금 파크'는 창사 50주년을 맞는 2011년 6월 개장하

고 전망은 드넓다. 미래의 큰 그림은 향후 MBC식구들의 지혜와 내공으로 이룩해야 할 과제다. '미완의 파크'는 대지만성 大地晩成중이다. 젓과 꿀이 흐르는 역동적인 복합기능을 살리기 위한 명제는 무엇인가. 30년을 맞은 용인 땅은 세월의 두께만큼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MBC 예능PD 열전 列傳 (Ⅱ)



유수열 (편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한 파트에서만 근무하 기관 대단한 어려운 일이다. 정기 인사도 있고, 문책 인사도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인사를 당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예능파트에서만 근무한 사람, 그가 **최선규** PD다.



예능파트에서 오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프로를 잘 만들어야 한다. 프로를 죽추면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다. 다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특히 후배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후배PD들이 젤 싫어하는 스타일이 “프로는 뭐같이 만들면서 품잡고 으스대는 선배”다. 예컨대 프로는 뭇같이 만들면서 술만 한잔 마시면 “연출이란 말야...” 이러면서 게거품 무는 선배들 말이다. 셋째로 데스크의 지시사항을 적절하게 소화해서 데스크를 편하게 해줘야 한다.

최선규 PD는 <MBC 그랜드쇼>, <쇼 2000>, <토요일 토요일밤에>, <토토>, <청소년음악회> 등 ‘주말 쇼’만을 연출했다. ‘주말 쇼’만 연출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단한 연출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1978년 <서울국제가요제>는 1회부터 연출했다. 그리고 <MBC 대학가요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올림픽경기 개선 환영쇼> 등 대형프로를 많이 연출했다.

그는 브리핑의 달인이다. 브리핑할 때는 아주 신뢰도 넘치는 브리핑을 한다. 영어회화에도 능하다. 잡스럽지 않고 고급회화를 한다. 아마 경기고교 시절에 안현필 선생에게서 배운 듯싶다. <서울국제가요제>를 기획하고 세계를 돌며 섭외하고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다. 한양대를 졸업하고 KBS에서 카메라맨으로 잠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상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대단하다. 줌샷스럽지 않고 대범한 연출을 한다. 1970년 MBC PD 2기생으로 입사하는데, 입사 때부터 쇼연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프로를 마음껏 한 PD다. 피아노를 치고, 브람스

4번을 즐겨듣는 고전 음악광이기도 하다.



지석원 PD, 성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육군 장교를 거쳐 1973년 3기생으로 입사한다. 그는 코미디와 쇼를 넘나들며 MBC예능의 뿌리를 지켜온 PD다. 프로그램만 잘하고 관리능력은 없는 PD들이 많으나, 지석원 PD는 프로그램도 잘하고 관리도 합리적으로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탁월한 조정자다. 공직에 갔으면 국무총리까지는 무조건 갔을 것이다. 머리로 항상 단정하다. 청주MBC사장, SBS편성이사 등을 거쳐 싸이더스 프로덕션에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다.

1976년 그의 입봉작 <여보여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놓고 예능파트는 고민에 빠졌다. 당시 7시대를 가족오락시간대라 하여 무조건 가족을 출연시켜 프로를 만들라는 문공부의 지침이 있었다. 가족들이 출연하여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 같은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출연자들은 카메라를 보면 떨려서 말도 잘못하고 마이크만 보면 주춤거리는 시대였다. 부부들을 출연시켜 퀴즈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하물며 ‘부부가 출연해 퀴즈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시절이었다. <여보여보 게임>은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밀실을 이용한 퀴즈 프로그램이다. 남편이 밀실에 들어가 대답을 하고 그 답을 아내가 맞추는 형식이다. 퀴즈문제는 식구생일 맞추기, 아이 담임선생 이름대기, 남편의 버릇, 신혼 첫날밤을 보낸 호텔이름 대기 등. MC는 차인태 아나운서였다. 대부분 PD들의 의견은 ‘이것은 프로가 안된다’는 것으로 압축됐다. 당연한 결론이었다. 그런데 갓 입봉한 지석원 PD는 ‘새로운 아이디어라서 프로가 된다’고 자신한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까지 한다. 선배들이 ‘으악’하면서 ‘그럼 네가 해봐’했다. 그런데 이 프로가 방송되자마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시청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그걸 계기로 새로운 포맷개발 운동이 시작됐다. <여보여보 게임>은 이후 신종인 PD, 김종학 PD로 이어져 장수 프로그램이 된다.

지석원 PD는 <일요일 밤의 대행진>을 만들어 배우머리 김병조와 강 석

을 스타로 만들었고 많은 개그맨을 키웠다. <일요일 밤의 대행진>은 상대사의 코미디강세를 눌러버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코미디와 쇼를 겸비한 연출자가 드문 방송가에서 지석원 PD의 존재는 단연 돋보인다. 예능과 트역사상 대단한 명장이다. 지금도 현역이다.



신승호 PD, 그는 일찍 MBC를 떠났으나 많은 전설을 남겨놓아 그의 자취는 항상 MBC에 남아 있다. 지석원과 같이 3기생으로 입사한다. 홍대 미대를 나온 예술가다. <연예수첩>, <쇼2000>,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등을 연출했다. 프로그램을 하든 안하든 24시간 바쁘게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연예계의 소식을 신승호 PD 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 주에 누구에게 어떤 일이 터진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 일이 터졌다. 그는 PD라고 해서 연예인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려운 일을 보면 발벗고 도와줘서 MBC예능에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스타일이었다. 연예인을 발굴하여 스타로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주현미, 김완선, 이용, 정수라, 최진희, 이선희 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공연하면 같이 무대를 만든다. 경인방송에서 제작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공연기획을 하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나팔꽃 인생 송해 빅쇼>가 장충체육관에서 이상벽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총연출을 신승호 PD가 맡았다. 장충체육관에서 4회 공연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전국투어를 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신승호 PD, 그도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다.



신종인 PD, 부산 해운대에서 바다를 보고 꿈을 키우며 자랐다. 중학교 때 서울로 단신 유학을 온다. 당시 그는 동아방송 <박인희의 3시의 다이얼>을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3시의 다이얼> 방송을 들으며 레코드판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돈이 생기면 클래식 음반도 모았다. 서울대 독어과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한다. 그리고 1976년 MBC에 입사한다. 음악방송이

하고 싶어 라디오로 지원했는데 들어와 보니 텔레비전 연출이 더 매력적이라 임원들을 졸라 TV예능파트로 자리를 옮긴다.

신종인 PD는 고집이 대단하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는 소도구를 어마어마하게 신청한다. 풍선100개, 200개가 아니라 10만개, 20만개를 신청한다. 나이가가라 불꽃도 100미터, 200미터가 아니라 한강을 다 덮을 정도의 나이가가라 불꽃을 신청한다. 그의 책상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다. 쇼 녹화일이 가까워지면 그는 사무실에서 사라진다. 다른 곳에서 일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데스크가 알 수 없게 만든다. ‘쇼 2000’ 방송 시절에 ‘들국화’의 전인권이 출연했다. 그런데 그의 장발이 문제였다. 당시 장발 연예인은 방송출연을 금지하고 있었다. 신종인 PD는 ‘장발을 정리하고 출연한다’고 말했다. 데스크에서는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녹화당일 국장 방의 모니터에 비친 전인권은 여전히 장발이었다. 표재순 국장이 데스크인 나를 불러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나는 할 말이 없어 ‘불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장은 ‘반드시 불방시키라’고 했다.

녹화 후 방송 전 편집실. 내가 보는 자리에서 신종인 PD는 전인권을 들어냈다. 확실하게 방송분에서 제거해버린 것이다. 나는 표 국장에게 ‘확실히 잘라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방송시간이 되어서 방송을 보는데 전인권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장실에서 모니터하던 표 국장께서 국장실로 오라고 전화가 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글쎄 말입니다. 확실히 편집했거든요” “아니 편집이라니. 지금 나가고 있잖아” “글쎄 말입니다” “아니 글쎄 말이라니...”

신종인 PD는 내가 보는 자리에서 전연덕스럽게 편집하고는 나중에 VTR맨에게 사정하여 전인권을 다시 붙여서 방송실에 갖다 준 것이다. 짧은 시간동안에 재편집한 것을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는 <영11>, <쇼2000>,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청춘만세>, <주병진쇼> 등을 연출했다. 그가 쇼연출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이어온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순수한 열정을 쇼에다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올림픽 개막쇼>, <아시안 경기개막쇼>, <뮤지컬 공연> 등 국가적 대형 행사 연출자로서 신종인 PD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단언한다. 언제라도 그런 쇼를 한번 더 연출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홍 성 PD,

MBC예능에는 여자 PD가 많다. 홍 성 PD를 비롯해 조희진, 사화경, 임정아 PD 등.

그 외에도 후배 여자 PD들이 더 있지만 그 밑은 잘 모른다. 홍 성 PD는 '지독한 여자'의 대명사다.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한다. 나는 홍 성 PD를 만날 때면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난다.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 체구도 작고 귀여운 얼굴에 약간 엑조틱(exotic)한 면도 있다. 말도 조용조용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다.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담당했을 때,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 나도 이 프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홍 성 PD의 얘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민간 방송사로서 꼭 해야 할 프로는 아니었다. 그렇잖아도 수해 모금방송,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모금방송, 제해발생 모금방송 등 수많은 모금방송이 있는데 '꼭 골머리 아픈 모금방송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반론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했다. "예능의 사명은 시청률은 물론이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책임져야 한다구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은 심장병, 백혈병, 뇌종양 등 각종 소아암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도와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열다섯 살 아래 어린이는 1,200만 명인데 1만 명에 1명 꼴로 소아암에 걸린다. 1년에 1,500명이 발병하고, 병원에 1만 명이 입원해 있고,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는 어린이는 5, 6만 명에 이른다. 홍 성 PD는 "어느 방송에서 이들을 다룬 뉴스를 보고 소아암환자를 돕고 싶다는 단순한 심정으로 기획했다. 진행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픈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보고 꼭 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고 말했다. 그녀의 성화에 간부들이 모른척하다가 마침내 '해바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시간 정도 편성해

줄테니 해바라'였다.

가수 이미지, 패티김, 윤복희를 비롯하여 106명이 자원봉사로 섭외되었다. 조용필이 기념곡을 작곡하고, 김창완도 기념곡을 작사, 작곡하고, 작사가 박건호와 작곡가 유영건도 기념곡을 만들어 냈다. 전국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통장을 개설하고 모금했다. 한국에 나와 있는 각국 대사들은 행사장에 단체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특이한 것은, 헝거리에서도 가수와 배우들이 출연하여 모금행사를 하고 축구경기 등 각종 체육행사에서도 모금행사를 한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놀랄 일이었다. "아니 왜 헝가리가 난리야?" 정부 각 부처에서 당일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정치가, 국회의원, 사회단체들도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MBC 정문에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위한 모금센터가 설치되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가족모임에서, 각종 파티에서, 연말모임에서 자선쇼를 하고, 그 수익금을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 내겠다는 연락이 왔다. MBC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었다. MBC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방송사가 돼버렸다. 1990년 12월 15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저녁 5시부터 4시간동안 전국다원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동의 도가니였다. 그 후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어졌다. 제 1회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서는 15억 원의 모금을 했고 2000명의 어린이를 도와주었다. MBC 역사상 이 프로만큼 큰 규모의 프로는 없었다. 규모면에서나 출연자 숫자에서나 시간상으로나 대형 생방송이었다. 모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짜임새 있고 다양하고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꾸몄다는 점에서 대성공이었다. <10대가수 가요제>, <서울 가요제>,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도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 비하면 이른바 '새 발의 피'였다. 홍 성 PD는 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76년 입사하여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뽀뽀>, <유쾌한 스튜디오>등을 연출했다. 지금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프로덕션 '온다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송창의 PD,

한국에 송창의 PD가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PD다. 첫째, 프로그램을 성공시킨다. 그가 손을 댄 프로치고 실패한 프로

가 없다. 둘째,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OLD한 코너는 버린다. 셋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휴머니티가 있다. 서강대 시절, <포타이탄스>라는 그룹사운드를 결성해 공연도 했다. 그는 싱어였다. 박인수의 <봄비>를 불렀다. '캠퍼스 스타'였다. 얼굴도 미소년처럼 천진한 동안이다. 53년생인데 지금도 29살로 보인다. 대학시절 그는 히피문화의 상징처럼 하고 다녔다. 장발의 머리칼을 휘날리면서 시내를 활보했다. 맨발에 가까운 신발, 요상한 의상, 노 런닝에 목걸이, 손에는 실뱀같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누볐다. 히피들만 오는 홍대 앞 음악다방거리는 그의 무대였다. 그는 재미를 추구한다. 재미없으면 계속할 명분을 못 찾는다. 술은 재미있으려고 마시는 건데 재미가 없으면 끝내야 한다. 방송프로도 재미가 없으면 끝내야 한다. "동의도 하지 않는 권위나 관습에 젖어서 놀려 지낼 필요는 없다. 한국문화에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힘이 든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욕먹는 편이 편하다"라고 생각한다.

1977년 7기생으로 입사한다. 78년에 대학가요제가 생긴다. 송창의 PD가 MBC입사 후에 대학가요제가 생겼으니 '포타이탄스'가 대학가요제에 나올 수 없었다. 나왔으면 무조건 대상이었으리라. 그는 <뽀뽀>로 임봉한다. 송창의 PD로 인해 <뽀뽀>는 방송사 어린이 프로그램의 왕자로 올라선다. <일요일밤의 대행진> 이어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특종TV연예> <일요일 일요일밤에>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성인시트콤 <세 친구>등을 연출한다. 그가 연출한 <우리 동요 60년사>는 한국방송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는다. 그는 스타를 잘 찾는다. 배우에게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 내 스타로 만든다. <뽀뽀>에서 뽀식이(이용식), 뽀병이(김병조)를 만들어 냈다. 송창의 PD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이태원의 '문나이트'에서 만난다. '문나이트'는 80년대 후반에 시작한 댄스음악의 성지다. 힙합문화의 산실로서 박남정, 현진영, 양현석, 이주노, 박진영, 등이 춤을 겨루던 곳이다. 송창의 PD는 이곳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발견하고 <난 알아요>로 <특종TV연예>에 첫출연을 시킨다. 이른바 '서태지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남자 셋 여자 셋>은 대학생들의 하숙집이야기를 다룬 시트콤이다. 그는 이 프로를 통해 신인 송승헌을 대스타로 만들어 낸다. 이의정, 홍경인, 강성연, 이제니, 이경실, 김진, 우희진 등도 새롭게 태어난다. <세 친구>에서는 안

연홍이 일약 스타가 된다. 정웅인, 윤다훈, 박상면, 최종원 등에게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는 '토크 코미디쇼'를 시도한다. 주병진을 MC로 하고 토크코미디를 출발시킨다. 순간순간 웃음이 발생하는 말의 묘미는 무궁무진하다. 이흥열, 이경규, 황기순 등이 토크코미디에서 크게 성장한다. 토크코미디는 순전히 말로 순간순간의 리얼리티를 살려 웃음을 준다. 시청자가 예상할 수 없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던 중 '몰래카메라'를 찾아낸다. 이경규가 주축이 된다. 이것이 발전하여 <이경규가 간다>가 만들어지고 <칭찬합시다>에 이른다. 송창의 PD가 시작한 '몰카'의 리얼리티가 지금은 전체 예능버라이어티에 퍼져 있다. 종편시대가 열리면서 그는 tvN 방송 본부장으로 옮겨 오늘의 tvN을 만들어 놓는다. 그후 TV조선 제작본부장, 부사장을 하다가 지난 3월에 그만두고 현재는 '코엔미디어' 대표로 일하고 있는 영원한 현역 연출자다.



김영철 PD,

<주부가요열창>이라는 대형쇼를 만들어 낸 연출가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라면 소박하고 오밀조밀한 가족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된다. '주부가요 교실'이나 '노래자랑프로'를 당연하게 떠올릴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출발한 <주부가요열창>은 회가 거듭할수록 시청률이 높아지고 인기가 상승했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주부가요열창>에 나오는 주부들의 인기도 높아졌다. 대형무대를 만들고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 출연한 주부가 노래하는 동안 마치 자기가 진짜 가수가 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1989년 12월 29일 <주부가요열창> 최종 연말결선에는 혼혈 아전윤희 주부가 대상을 받았다. 기성가수를 능가할 만큼 풍부한 성량으로 열창했다. 그녀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탓에 출연할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고 더욱이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자란 주부"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 출연하게 됐다. 그녀의 아버지는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흑인이었고 그녀의 남편도 흑인이었다. 가수도 울고 전 출연자들은 물론, 제작진도 울고 시청자도 눈물을 흘렸다. 대단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혼혈아라서 힘들었던 세월의 고통과 설움을 김영철 PD가 <주부가요열창>을 통해

씻어준 것이다.

그는 또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의 연출자로서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작업을 했다.

여러 가지 이벤트,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사랑의 축구대회’를 하고, 국회의원과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대형 마라톤행사도 했다.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연출하면서 9년간 200억원을 모금하여 5000명 이상을 치료 해주었고, ‘무의탁 이웃돕기’ 행사와 ‘정신대 할머니’ 돕는 행사도 진행했다. 그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장태연 PD,

전기통신공학 전공에도 불구하고 문과 출신 PD를 능가하는 탁월한 기획력을 갖고 있다.

방송의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추고 있다. <화요일에 만나요>, <쇼! 네트워크>의 성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두루 능숙한 능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장태연 PD는 선배의 프로를 받아서 한 적이 없다. 항상 본인이 창안한 프로를 연출했다. <화요일에 만나요>는 생방송 중 가수와 시청자가 전화로 만나는 쇼프로였고, <쇼! 네트워크>는 엽서를 집계해서 인기가요순위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5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컴퓨터로 집계를 하고 다룬타운 DJ집계를 연결하는, 좀 복잡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이 좋았다. 그가 만든 <경찰청사람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police story로 시청률이 높았다. <경찰청사람들>이 나온 이후 타 방송에서 많은 종류의 경찰청이야기가 나왔다. <1318 힘을 내>는 새로운 스타일의 청소년 대상 오락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했다. 선생님과 춤을 추고 이성친구와 공개적으로 데이트하며 노래도 부르는 프로였다. 오빠부대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들어내자는 의도였다. <성공시대>와 <웃으며 삼시다>도 연출했다.

그는 선후배에 대한 깎듯한 존경과 세심한 배려를 지닌 PD다. 뉴욕대학원에서 2.5년간의 유학을 통해 TV프로덕션에 대한 MFA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Fine Art분야에서의 MFA학위를 박사에 해당하는 학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충남에 있는 청운대학교에서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81년 입사하여 제작본부장, 전주 MBC사장, MBN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주철환 PD,

<우정의 무대>가 시청률이 신통치 않아 막을 내리려 할 때 그가 연출을 맡아 맛깔스럽게 만들어 인기절정의 프로로 만들었다. 그 공로로 한국방송대상에서 <우정의 무대>는 작품상을 수상한다. <모여라 꿈동산>, <퀴즈 아카데미>, <일요일 일요일 밤에>, <유쾌한 스튜디오>, <21세기 위원회>, <가족합창제>, <MBC대학가요제> 등을 만들어 냈고, 변화가 필요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연출을 맡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토토즐 크리스마스특집>에 최수종, 황신혜, 김자옥, 김정은 등을 출연시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만들어 절찬을 받는다. ‘항상 변화해야 한다’는 연출 신조를 가진 주철환 PD는 선배들의 많은 프로를 새롭게 만들었다. 국어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사이먼과 가펩클의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를 반드시 가르쳐 주고 같이 불렀다. 그는 또한 많은 노래들을 작곡한다. <퀴즈 아카데미>의 주제가 <꽃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세상, 뭐 신나는 것은 없을까>. <모여라 꿈동산>과 <유쾌한 스튜디오>의 주제가와 타이틀곡 등을 작곡했다.

그는 글 잘 쓰는 PD다. 시도 쓰고 작곡, 작사도 하고 소설도 쓰는 대단한 PD다. 1983년 입사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2000년에 이화여대 교수로 MBC를 떠난다. 2007년에는 인천방송 사장으로 간다.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기고 공중파와 맞먹는 많은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양질의 프로를 만들어낸다. 2010년 종편 jtbc개국과 함께 제작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력투구를 하더니 홀연히 방송사를 떠나 2014년 아주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국문학박사다. 대단히 바쁘고 언제나 행복한 표정의 주철환 PD.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지 궁금하다.

안우정 PD,

그의 기타 실력은 가히 수준급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기타로 흥을 돋웠다. 그의 쓰리핑거링 주법은 정말 들을 만하고, 청음이 강해 음악을 듣고 곧바로 악보에 옮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 대학시절 레스토랑에서 한동안 기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80년대에는 기타 치는 PD가 별로 없었다. 드라



마 파트에서 <애인>을 연출했던 이상순 PD가 기타를 잘 쳤는데, 연세대 축제를 휘어잡은 캠퍼스 스타였다. 그리고 예능파트에서는 단연 안우정 PD였다. 그는 MBC 코미디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개그맨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캐릭터를 부여해서 웃음을 만들어낸다. 또 특별한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하여 웃음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오늘은 좋은 날>을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연출했다. 강호동, 박주미의 <소나기>는 강호동을 전국적인 스타로 만든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체구에 맞지 않는 강호동의 귀여운 아역연기는 압권이었다. 서경석, 조혜련, 김효진의 <울엄마>에서는 프랑스 영화주제가 <남과여>를 타이틀곡으로 썼다. 이 곡에 맞춰 김효진과 서경석의 깜박깜박거리는 눈의 연기는 압도적이다. 이경규와 이정실의 유행어 “별들에게 물어봐”, 김자옥의 공주병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이윤석 김진수의 <허리케인 블루>, 임하룡, 이홍렬의 <귀곡산장>에서 “뭐 필요한 것 없수?”, 임하룡, 조혜련의 “가만 안 두겠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 시트콤 <여자대 여자>를 연출하여 MBC 시트콤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고, <웃는날 좋은 날>, <코미디 하우스>, <MBC 가요제전>, <청춘 행진곡>, <신중현의 헌정콘서트> <조용필특집-나는 조용필이다>, <쇼! 네트워크>, <음악이 있는 곳에> 등을 연출했다.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84년 입사하여 현재 MBC강원영동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성호 PD,

방송사마다 연예정보프로그램이 있다. 연예정보프로그램은 세계 어디서든 경쟁력이 센 장르다. <KBS 연예가중계>, <SBS 한밤의 TV연예>가 인기를 선점하고 있을 때 MBC가 뒤늦게 연예정보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쟁에 뛰어든다. 처음에는 상대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렸지만 <섹션TV 연예통신>의 이성호 PD가 맹추격해 결국 <섹션TV 연예통신>을 정상에 올려놓는다. 그는 성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84년 예능PD로 출발한다. <우정의 무대>, <MBC 일요 큰잔치>, <스타쇼>, <섹션TV 연예통신>, <영상음반대상>, <명사 초대석>등을 연출했다. 지금도 MBC 예능PD들과 선,후배의 관계를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현역이다. 이성호 PD는 얼마 전故심승근 PD의 기일에 홀로 산소에 다녀왔다. 바쁜 일정 속에서 고인이 된 옛 동료의 산소를 다녀오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호 PD는 달랐다. 인생의 깊은 뜻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으리라.

조희진 PD는 입봉작 <스타 레볼루션>을 연출했다. 서해안의 갯벌에서



이민우, 김수용, 김민희, 성진우, 홍석천 등의 기성 스타팀과 이영자를 주장으로 하는 신인팀의 한판 대결 프로그램이었다. 입봉작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PD의 도움없이 혼자 그곳에 갔다. 문자 그대로 얼굴이 미친년처럼 되어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봤다. <진짜 사나이>보다 험한 훈련이었다. 그 때 출연한 신인들은 나중에 다 스타가 됐다. 당시 정준하는 다른 연기자보다 오랜 동안 신인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정준하는 개그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PD들의 중론이었다. 조희진 PD는 그를 <일밤 노브레인>에 출연시켜 정준하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 그 외에도 <코미디 하우스>, <안녕 프란체스카>와 <논스톱>을 연출했다. 연세대를 수석 졸업했던 조희진 PD는 뉴욕 PD 특과원을 지내고 다시 프로그램기획을 하고 있다.

사화경 PD는 예능2국장으로 텔러트 사미자의 조카다. 그녀는 <섹션TV 연예통신>과 시트콤<불수목 애교만점>, <전과견문록>등을 연출했다. 임정아 PD는 <위대한 탄생>, <논스톱>등을 연출하고 MBC를 떠나 jtbc로 자리를 옮겨 <비정상회담>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1984년 이전에 입사한 예능PD들을 주로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너그려이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84년 이후 입사한 PD들 즉, 84년 <은경표, 송승중, 김종진, 이원용, 방성근, 이웅주, 김지완> 85년 <주창만, 원만식, 황용우> 86년 <김엽, 김영희, 고재형> 87년 <故심승근, 김승환, 김현철>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특별히 MBC예능의 상징이자 최근 한국 예능을 이끌어 온 **김영희** PD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집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는 정말 대단한 PD입니다. 한국 방송에 리얼리티 예능의 방향을 만들어 낸 PD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예능계가 반드시 크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무한도전’을 만들어 낸 **김태호** PD 또한 너무도 자랑스러운 후배들입니다. MBC예능 만세!

여기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입니다



문 장 환 (기술)

“쫄림썰어” (안녕하세요) 기술부문의 문장환입니다. 저는 정 효식 사우와 함께 캄보디아 정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의 ‘디지털 전환 정책 자문관’으로 프놈펜에 와 있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진행하는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모집에 응시하여 선발, 파견된 것입니다. ‘월드프렌즈 자문단’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비슷한 단체로서, 기술 특히 IT, 전자정부 등 전문성이 높은 부문을 주관하고 있으며, 봉사, 교육, 건축, 교통 등의 분야는 KOICA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은, 해오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늦었지만 넓은 세상으로 시야를 돌려 삶의 지평을 확장하고,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나눔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발과정을 겪을 때까지는 기대감과 함께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기술 분야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같이 갈 집사람 또한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를 대표하여 해외에 나가 활동한다는 것”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KOICA교육원에서 2주간의 현지 적응교육과 업무추진을 위한 이론교육을 수료한 후, 지난해 12월 6일 밤 일행 5명은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놈펜에서의 첫 느낌은, 우리의 70년대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과 40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온 이방인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KOICA 현지 교육을 마치고 출근을 시작했을 때의 또 다른 느낌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오토바이와 툭툭이가 넘쳐나는 무질서한 도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무감각한 국민들, 많은 공무원들이 Second Job을 갖고 오전에는 공무원으로, 오후에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행태를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은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Second Job을 용인한다는 것과 또한 무질서 속에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국의 원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지만, 매년 경제성장률은 7%에 이르고, 이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은 인근 국가에 비해 상승폭이 높아 프놈펜시 전체가 해외자본의 투자로 하루가 다르게 면모를 쇄신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한 3년쯤은 도전해 볼 만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현지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은 아니지만, 캄보디아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현지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장관을 비롯한 현지 Co-worker와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인과의 교류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캄보디아에서 3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라디오 신호와 공항 관제탑과의 혼신문제를 한국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성과를 올리는 등 현지에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며 현지 직원에 대한 한글교육과 기술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문관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처럼 “인생 2막은 마음과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나만의 여정”이라는 말을 좇아 30여년의 방송경험과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으며 인생 2막의 삶을 가꿔나가고자 합니다. 사우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여 다시 뵙겠습니다.

해오 TV - 라이칸싱 누적 시청자 1000만명 달성

iMBC

Global Content & Platform Leader

참여형 모바일 플랫폼 '해오!', 중국 한류 플랫폼 '라이칸싱(來看星)', MBC 다시보기, 인터넷 라디오 'mini', 영화, 연예스포츠뉴스, 해외직구, 게임 등 iMBC는 시청자와 MBC가 만나는 디지털 접점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55 (상암동 문화방송미디어센터 10층)
T.02-2105-1100
www.imbc.com